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게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핵심적인 수양 방법론이었다. 고봉 기대승은 이러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체계적인 독서 과정으로 '삼해(三解)'를 제시하였다. 그는 독서를 통한 앎의 심화가 단편적인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문자적 이해에서 시작하여 이치적 분석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마음으로 체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기대승이 정립한 삼해의 과정은 독서라는 행위가 어떻게 학문적 탐구와 인격적 수양을 통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삼해의 첫 번째 단계는 '문자해(文字解)'로, 글자의 뜻과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는 경전의 표면적 의미를 정확히 해독하는 기초 작업으로, 훈고(訓詁)와 같은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대승은 문자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전의 깊은 뜻을 논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문자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독자 개인의 주관적 억측이나 아전인수격 해석에 빠져 성현의 본래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해는 이후의 심화된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자, 독서의 논리적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문자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의리해(義理解)'이다. 의리해는 문장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성리학적 원리와 도리, 즉 의리(義理)를 사유하고 궁리하는 지적 탐구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문장과 문장, 개념과 개념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고, 경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당 구절이 지니는 철학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의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성현의 사상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앎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다. 의리해를 통해 독자는 흩어져 있던 지식을 체계적으로 엮어내고, 경전이 제시하는 이치를 자신의 지성으로 온전히 소화하게 된다.

기대승의 독서관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궁극적인 단계는 '심득해(心得解)'이다. 심득해는 문자해와 의리해를 통해 파악한 경전의 이치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자신의 인격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체화(體化)의 과정이다. 이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 앎이 독자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문자해와 의리해가 책 속의 이치를 '아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심득해는 그 앎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주체적 과정이다. 기대승은 독서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 심득해에 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앎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훈고는 의리해 단계에서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 ② 심득해는 지적인 동의를 통해 앎과 실천을 연결한다.
- ③ 의리해는 경전의 이치를 독자의 지성으로 소화하는 과정이다.
- ④ 기대승은 독서의 궁극적 목적으로 지행합일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 ⑤ 문자해는 독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현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2. 기대승이 제시한 독서의 궁극적 경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자해 단계에서부터 독자 개인의 주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이겠군.
- ② 의리해를 통해 얻은 지적 앎이 독자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③ 심득해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경전의 의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겠군.
- ④ 경전의 이치를 깨닫는 심득해와 삶의 실천은 별개의 수양 과정으로 보는 것이겠군.
- ⑤ 의리해를 통해 경전의 철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으로 독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궁중 요리 장인의 수제자인 갑과 을은 스승의 비법서에 담긴 한 가지 요리를 배우고 있다.

갑: 비법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재료의 양과 조리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는 비법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요리 숙달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을: 갑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법서를 꼼꼼히 익힌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재료가 어우러져 맛을 내는 원리는 무엇인지, 특정 조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한다. 마침내 그는 비법서 없이도 상황에 맞게 재료를 조절하여 더 깊은 맛을 내는 경지에 이르렀고, 스승은 “이제 그 요리가 온전히 너의 것이 되었구나.”라며 칭찬했다.

- ① ‘갑’은 문자해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 ② ‘을’은 문자해를 건너뛰고 의리해를 추구하였다.
- ③ ‘갑’의 태도는 주관적 억측을 배제하려는 의리해의 과정에 해당한다.
- ④ 스승의 칭찬은 ‘을’이 앎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심득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 ⑤ ‘갑’과 ‘을’의 차이는, ‘을’과 달리 ‘갑’은 흠어져 있던 지식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설

1. ③

[정답해설]

3문단에서 의리해는 문장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성리학적 원리를 사유하는 지적 탐구 과정이며, 이를 통해 독자는 경전이 제시하는 이치를 자신의 지성으로 온전히 소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피하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훈고는 문자해 단계에서 경전의 표면적 의미를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 활용하는 언어학적 분석 방법이다.
- ② 4문단에서 심득해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 앎이 내면화되는 경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적인 동의를 통해 앎과 실천을 연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기대승은 독서의 진정한 목적을 심득해에 두었으며, 지행합일은 심득해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보았다.
- ⑤ 2문단에서 문자해는 독자 개인의 주관적 억측이나 아전인수격 해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②

[정답해설]

② 4문단에서 독서의 궁극적 단계인 심득해는 문자해와 의리해를 통해 파악한 이치를 마음으로 깨달아 자신의 인격과 하나가 되게 하는 체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앎이 내면에 뿌리내려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발현되는 경지이며, 이를 통해 지행합일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리해를 통해 얻은 지적 앎이 독자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문자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독자 개인의 주관적 억측이나 아전인수격 해석에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문자해 단계에서부터 주관적 깨달음을 중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독서의 과정은 문자해, 의리해, 심득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리해를 통해 경전의 이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후, 그 앎을 내면화하는 심득해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심득해를 바탕으로 의리해를 수행한다는 것은 독서 과정의 순서를 뒤바꾼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4문단에서 심득해는 앎이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경지이며, 이를 통해 앎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지행합일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

득해와 삶의 실천을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서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심득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리해는 심득해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일 뿐, 그 자체가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리해를 통해 독서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④

[정답해설]

4문단에서 심득해는 앎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주체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보기>에서 스승은 ‘을’에게 “이제 그 요리가 온전히 너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칭찬하는데, 이는 ‘을’이 요리에 대한 앎을 완전히 체화하여 심득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갹’은 비법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지키려 하므로, 문자해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자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을’은 ‘갹’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법서를 꼼꼼히 익힌다’고 하였으므로, 문자해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건너뛰지 않았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주관적 억측을 배제하려는 노력은 객관적이고 엄밀한 문자해의 특징이다. ‘갹’의 태도는 문자해 단계에 해당하며, 이치를 사유하고 궁리하는 의리해의 과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 ⑤ 3문단에서 ‘흠어져 있던 지식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것’은 의리해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갹’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심득해의 경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선지는 ‘을’이 도달한 궁극적 경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둘의 차이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